



“’92 PMA Show 에서 국산 광학기기 의수출가능성 확인”

글 : 이광호전무이사/ 한국광학기기협회

지난 2월6일에서 12일까지 9일간에 걸쳐 미국 Las Vegas 시 소재 Convention Center 에서 제68차 PMA SHOW가 개최 되었다.

PMA Show는 사진, 영상 광학기자재의 생산업체, 수출업체, 유통업체등 전세계로부터 1만6천여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미국 Photo Marketing Association Int'l (약칭 PMA)이 매년 개최하는 사진, 영상 광학기자재 전문 전시회(Trade Show)로써 68년의 긴 역사를 지닌 권위있는 전시회이며 독일에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Photokina Show와 더불어 양대산맥을 이루는 세계적 전시회이다.

특히 이 전시회는 전세계 사진, 영상기자재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지

역에서 개최될뿐 아니라 매해 연초(2월)에 개최됨에 따라 그 해의 제품 및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시회로 평가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전시회에는 주요 사진, 영상 및 광학관련 업체들 대부분이 제품을 출품, 전시하고 상담을 추진하는데 금년도 전시회에는 미국의 Kodak사를 비롯하여 일본 유명업체등 7백5개사가 각기 독특한 특성을 지닌 전시관을 마련하여 제품을 출품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도 삼성광공업(주), 삼양광학공업(주), 현대전자산업(주), CK산업 등 4개사가 4,200 S/F에 해당하는 면적에 카메라류, 렌즈류, 미니랩(자동칼라 사진현상 인화기)쌍안경등을 전시하여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기존 거래선은 물론 남미 국가등 많은 신규 거래선을 확보하면서 8천5백만불 상당의 상담 내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나라 광학기기 산업의 수출가능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올해 PMA전시회에서 국내 광학기기업체들 중 삼성항공, 삼양광학, 현재전자등 카메라 업체가 현 세계 카메라 시장의 주력기종인 2배-3배 Zoom Compact Camera를 일본에 이어 1년여의 격차를 두고 출품한 것과 더불어 C.K산업이 일본 제품의 독무대라 할 수 있는 미니랩 시장에서 자체 개발모형을 전시하므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를 통해 국내 업체도 현재의 노력을 배가 한다면 수출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또한 최근 급격히 성장하고있는 남미 시장에도 국내 업체들이 적극 진출하여 수출시장 다변화를 꾀해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 PMA Show에 전시된 제품들은 예년과 같이 카메라, 캠코더, 미니랩, 렌즈, 필름, Tripod등 각종 악세서리류, 쌍안경등 광학기, 각종 사진 영상처리기기 및 자재들로써 올해에는 특히 Photo Compact Disk등이 새로운 장르로 발표되었다. PMA'92의 주요 제품별 출품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카메라: Zoom 기능보유 초소형 카메라가 향후의 시장을 주도할듯.

올 PMA Show에 출품된 카메라 분야에서는 획기적인 변화는 없었으며 여전히 컴팩트 줌 카메라와 AF 일안 레프 카메라가 시장을 주도하였다.

컴팩트 줌 카메라에서는 초점거리 35-105mm 또는 38-110mm의 3배줌이 주력 기종으로 정착된듯하나 초점거리의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3배줌의 한계로 보여지며, 약간의 외관 디자인 변경이나 기능의 추가 이외에 두드러진 변화는 없었다. AF 일안 레프 카메라에서는 니콘 F4S 나 캐논 EOS 1 카메라와 같이 셔터 속도가 빠른 카메라로

업 체 명	전시면적	주요전시제품
삼성항공산업(주)	2,100 S/F	카메라, 쌍안경
삼양광학공업(주)	700 S/F	카메라, Lens류, 쌍안경
현대전자산업(주)	809 S/F	카메라
C K 산업	537 S/F	미니랩
KOTRA	54 S/F	KOTRA및 대전 EXPO소개

특화해가는 경향을 보였다.

이번 PMA Show의 또 한 가지 주요한 흐름은 소형(Slim형) 줌 카메라의 보편화이다. 35mm Compact Zoom카메라의 연장선상에서 소형 줌 카메라가 속속 발표되었다. 또한 컴팩트 카메라에서도 뷰우파인더 시도조정과 같은 악세서리등이 부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컴팩트 카메라 시장에서는 밝기가 밝은 렌즈를 장착한 카메라가 선보이고 있다. 즉, 종전의 35-105mm 컴팩트 줌 카메라의 경우 F5.6-F8 정도가 보편적이었으나 F2.8의 렌즈도 새로이 선보였다.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가 발표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스펙 향상 경쟁이 심화되리라 보여진다.

현재 세계시장의 카메라 수요는 연간 5천2백만대 전후로 추정되고 있는데, 고급기종인 AF SLR카메라는 연간 약 4백50만대 수준에서 평행을 이루고 있고 110mm등 저급 카메라는 그 수요가 급감하면서 Compact형 줌 카메라가 주력 기종으로 정착된듯하나 위에

서 언급한바와 같이 Slim형 줌 카메라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이기종이 주력기종으로 부상할것이 확실시 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 이어 2번째로 3배 Zoom Compact형 카메라를 개발, 이를 주력 기종으로 하여 올 PMA Show에 출품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으나 미래시장을 위해서는 조기에 Slim형 AF Zoom 기종의 개발이 필요한것으로 본다.

렌즈류: 고급 렌즈의 전문화 경향 보여

렌즈분야에서는 렌즈의 고급화와 AF화가 진행되고 있다. 종전에는 니콘이나 캐논과 같은 주도적인 카메라 회사에서만 만들어내던 저분산유리 렌즈(Low Dispersion Lens)나 아포 렌즈(Apochromatic Lens)등을 탐론이나 토키나 같은 교환렌즈 메이커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 렌즈들로 하나의 시리즈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런 고급 렌즈들은 종전의 렌즈 시리즈와는 구별되는 디자인과 명칭을 갖고 있었다.

AF렌즈에서는 캐논, 니콘,

미놀타 카메라용의 렌즈들이 교환렌즈 메이커들에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었으며, 점차 초점거리가 긴 크고 무거운 렌즈나 저분산유리 렌즈, 아포 렌즈등의 AF화도 진행되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삼양광학이 각종 교환렌즈를 선보였으나 SLR용 AF Power Zoom Lens의 조기 상품화 및 전문화를 추진, 오랜전통의 렌즈전문메이커로서의 재기가 요구되고 있다.

미니랩 : 계속적인 수요증가 대비 조기 국산화 요망

이번 PMA SHOW의 두드러진 특색으로는 미니랩을 출품한 회사수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카메라 메이커가 PMA SHOW를 주도하였으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니랩 메이커들이 전시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은 컴팩트 카메라의 대량 보급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진을 찍게 되어 사진을 현상, 인화하는 미니랩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많은 메이커들의 시장참여와 그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유발하게 된 때문이라 본다.

이번 PMA Show에서는 노리쓰사가 가장 많은 기종의 미니랩을 선보였다.

미니랩 분야의 특징으로서 종전에는 대형 현상소에서

“

올 PMA SHOW의 두드러진 특색은 미니랩을 출품한 회사수가 두드러지게 많아졌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카메라 메이커가 PMA SHOW를 주도해왔으나 이번 전시회에서는 미니랩 메이커들이 전시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

만 가능했던 8x10과 같은 큰 크기의 인화가 미니랩에서 보편적으로 채택되고 있으며, 칼라 모니터를 보면서 컴퓨터로 크기, 색상, 구도등을 임의로 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기종들이 속속 개발되어 발표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필름 현상과 사진인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기종들의 발표도 눈에 띄는 현상이었다.

한편 소형화도 진행되고 있으나 소형 미니랩의 경우 3x5 포맷만을 인화할 수 있고 약품을 조금밖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인화 도중 약품이 떨어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 하였다.

현재 미니랩의 전세계 보급대수는 약 6만대 전후로서 연간 약 1만대 이상 보급되고 있으나 최근 소형화, 다기능화, 가격의 저렴화로 그 보급이 급속히 확산추세에 있으며 점차 Desk Top형의 기종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전문 칼라 현상소에서 취급하던 것을 슈퍼마켓등에서도 손쉽게 미니랩 설치가 가능하도록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에서는 C.K산업이 독자 모델을 전시하였으나 향후에는 국내 미니랩 메이커들이 하루속히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미니랩을 수출산업화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쌍안경 : 전통적 색상으로 회귀

쌍안경 분야에서는 고무로 몸체를 감싸는 이른바 아모 (armored) 타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아모 타입에서도 위장색 형태인 카모 (camouflage)와 빨강, 노랑등의 원색은 사라지고 전통적인 쌍안경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92년 PMA SHOW 전시장 내부 모습



검은색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엿볼수 있었다. 스포팅 스코프 분야에서는 유선형 형태를 한 새로운 디자인이 여러 회사에서 출품되어 새로운 디자인 경향을 보였다.

이밖에 최근 몇년간 작은 메이커에서 파워줌 쌍안경을 아이디어 상품으로 계속해서 선을 보이고 있으나 별로 소비자의 시선을 끌지는 못하는듯 했다.

PHOTO CD : 새로운 사진 영상 분야의 가능성 보여

을 PMA show에서 새로운

장르로 발표된 것은 photo Compact Disk이다. 이제품은 Photo Compact Disk에 있는 화상을 칼라 레이저 프린터 또는 칼라 써멀 프린터(Color thermal printer)를 이용하여 원하는 화상을 뽑아내는 새로운 방식의 화상 재생장치이다. 이 방식에는 전자 스틸 비디오 카메라를 써서 촬영한 디스크를 써멀 프린터등을 써서 직접 찍어내는 방식과 필름에 찍힌 화상을 필름 스캐너로 분해하고 CD writer를 써서 CD로 만든 후 이를 써멀 프린터등으

로 찍어내는 방식이 있다. 뽑아낸 사진의 해상도는 스틸 비디오 카메라를 이용한 경우, 화질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외에 컴퓨터 조작을 통해 색상, 구도, 크기등을 선택할 수 있고, 문자등을 임의로 집어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제품은 주로 Kodak등 필름 메이커에서 발표하였다.

기타제품

역대 PMA Show에서 가장 화려하게 전시된 제품은 필름류였다. 금번 전시회에서도 전 세계 유명 필름 업체인 KODAK, FUJI, AGFA, KONICA등 굴지의 기업들이 여타 제품과 함께 최신의 필름을 독특한 전시방법을 이용하여 전시하였다.

비디오 카메라는 지난해 전시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돋보이진 않았는데 이는 미국 시장에서의 캠코더 수요감소에 기인한듯하다.

이밖에 Tripod 등 사진 및 영상관련 악세서리, Video Transfer, 사진용 가방, Album등 사진관련 주변제품, 직업사진관용 각종 기자재들이 다수 전시되었다.